

특집논문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

김기란 |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이영아 |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권명아 | 불/가능한 싱글라이프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사이의 삶과 죽음

임지연 | ‘여성문학’ 트러블

-곤경에 처한 21세기 여성문학 비평

이명호 |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

-1990년대 미국과 2000년대 한국 페미니즘 담론 비교연구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 분석을 통해-

김기란*

〈차례〉

1. 사회적 소통 체계로서 매체
2. 『제국신문』이라는 매체
3. 『제국신문』의 두 개의 여성 이야기
-열녀/非열녀의 코드화
4. 『제국신문』의 기사와 『혈의 투』의 서사
-열녀/非열녀 코드의 확장, 문제적 두 여성 주인공
5. 매체의 코드화와 문학 장르

〈국문초록〉

지난 2000년대 근대계몽기 문학 연구의 학제적 전환은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와 문학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문적 접근을 통해 가능했다. 그런데 근대계몽기 매체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매체를 문학텍스트를 담고 있는 도구나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다수의 문(文) 영역을 문학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문학 “내부로 수축(involution)”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인쇄매체가 새로운 소통 체계의 도구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상식적인 이해나 인쇄매체가 처리하는 정보에 집중하는 태도만으로는 근대계몽기, 소통 체계의 변화가 가능하게 한 인간의 인식과 감성구조의 변화를 면밀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매체는 매체가 위치한

*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사회적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천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의미를 지니는 조직이나 제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 과정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본고는 근대계몽기 사회적 의사소통 체계로 기능했던 신문매체와 문학장이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특히 1898년 8월 10일 창간되어 1910년 3월 31일까지 한글 표기로 발행된 『제국신문』에 실린 여성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근대계몽기 여성인식이 매체의 코드화에 의한 일련의 사회적 소통과정을 통해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결과물인 신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로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대계몽기 당대 이념이 매체를 통해 개연화 되는 소통의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본고는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에서 드러나는 관념적으로 상상된 여성성(Women)과 현실 속 여성(women)에 대한 인식이 매체의 코드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되며 개연적인 여성인식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매체와 문학이 상호 교섭하는 문학장 내부의 코드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으며, 근대계몽기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이 당대 어떤 의미론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핵심어: 『제국신문』, 근대계몽기 여성인식, 열녀와 非열녀, 매체, 코드화, 『혈의 루』

1. 사회적 소통 체계로서 매체

“문학에서 문화”라는 구호¹⁾는 지난 2000년대 국문학 연구의 학제적

1) 이에 대해서는 소위 문화론 내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참조할 수 있다. “근대문학의 기원을 찾는 작업 자체가 근대문학사를 해체하고 다시 쓰기 위한 작업과 연관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90년대 이후 ‘(근대)문학의 위기’도 함께 얹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환기할 필요가 ‘부정적’ 자기규정에 관련되어 있었고, 이 자체가 ‘문화론적 연구’의 출발이기도 했습니다.”(천정환, 2006년 민족문학사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발제/질의문)

전환을 간명하게 압축한다. 학제적 전환의 계기는 한국근대문학의 기원을 탐색한다는 명분 아래 마련되었고, 그것의 구체적 전개는 실증적 태도를 표나게 내세워 국문학의 연구대상을 작가와 작품에서 문학장(文學場)²⁾으로 확장시키는 소위 문화론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을 근대계몽기 문학 연구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문학장 내부에서 문학이 분화되는 정황을 문(文)과 매체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글쓰기 방식의 변화, 매체를 통해 활성화된 문학 소비 체계의 변화, 새로운 독자층의 구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진행³⁾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전통적 문으로부터 문학이 자율적 예술체계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황을 분석하여 전통적 문으로부터 새로운 문학을 구성하려는 역동적인 실천이 사회·문화적 영역의 경계를 넘어 교섭했던 정황을 매체와 연관시켜 고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체연구와 연동된 문화론은 매체를 문학텍스트를 담고 있는 도구나 그것을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태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근대문학 연구에서는] 문의 영역에 대해서 그것의 실질적인 역사적 존재방식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내부로의 수렴운동을 통해 결정화된 문학성에 근거하여 문의 영역을 몇 가지 양상으로 분절하고 있다. 즉 문학을 모종의 양식 혹은 심미적인 것 등으로 간주하면서도 그것이 1차적으로 기능하는 소통 체계로서의 매체 성격을 간과하고 있으며,

2) 다른 사회적 시스템(체계)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문학적 시스템을 말한다. 곧 정치와 권력, 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율적인 문학적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장은 미적 기호, 취향, 신념, 가치관, 구체화된 작품과 특화된 활동 영역을 구성하며 그것의 자율성은 미적 근대성의 표지가 된다.(김춘식, 『한국 신문학 초창기의 문학장의 형성과 서구적 개념의 미적 근대성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12호, 2005, 181쪽.과 피에르 부르디외(하태환 옮김),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8, 158~162쪽.)

3)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에 대해서는 정보전달이라는 미디어의 특정한 기능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문의 영역 속에 놓여있음은 주목하지 않는다.”⁴⁾ 이는 “자기시대의 문학성을 도출하기 위해 다수의 문 영역을 ‘문학’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문학자신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과도하게 치중하는 “내부로 수축(involution)”하는 연구 경향을 겨냥한 비판으로, 문자텍스트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며 문화론적 접근을 시도한 지난 10여년의 학제적 전환의 의미를 다시 성찰케 한다.

매체는 한 시대의 신념이나 가치체계(푸코식으로 말하자면 담론)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변용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련의 사회화 과정을 매개한다.⁵⁾ 매체는 새롭게 등장한 담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매개함으로써 의사소통 방식 자체를 변용시켜 새로운 표상 체계의 코드를 창출한다. 즉 한 시대의 신념과 가치체계는 매체를 통해 사회적 문제제기와 다름없는 준거의 틀을 통과하며 새로

4) 차태근, '매체의 문학과 문학적 매체', 『지식의 근대기획, 미디어의 동아시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양학술학회, 2007, 87~88쪽.

5) 매체에 대한 정의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대부분의 매체이론은 이 세 가지 개념을 공유한다. 매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매체를 특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로(Kanäle)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포괄적인 만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을 상징하게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즉 내용과 그것의 전달과정이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각각 다른 수용자에게 어떤 지각의 차이를 가져 오는가 등의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두 번째 정의는 매체를 언어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다양한 매체의 ‘문법’을 고찰하는 바 매체의 문법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와 복합매체의 문법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된다. 세 번째 정의는 매체 각각이 아닌 매체 간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로 매체를 둘러싼 환경과 문맥에 관심을 보인다. 개인이 매체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초개인적·사회적 문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과 매체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정치·역사적 환경과 문맥을 주요 관심사로 연구한다. 새로운 매체가 낡은 매체를 어떻게 대체해 나가는가, 새로운 매체는 사회적 관습이나 익숙한 환경과 어떻게 융합되어 나가는가, 사회적 제도를 새로운 매체는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 등이 주요 의제들이다(Peter Ludes, *Einführung in die Medienwissenschaft-Entwicklungen und Theorien*, Berlin: Erich Schmidt Verlag, 1998, pp.40~41).

운 표상 체계로 코드화된다.⁶⁾ 따라서 매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적 수단 혹은 도구라는 상식적 이해를 넘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가령 백루언은 “인간의 힘과 감각 및 육체적 기능을 기술적으로 확산, 보완해 주는 모든 것을 매체로 규정”했고, 미하엘 기제케(Michael Giesecke)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저장체”를 매체로 부를 것을 주장했는데, 이들의 개념 규정에 따르면 복잡한 기술적 장치뿐만 아니라 정보 저장 기능을 보유한 사회 집단과 인간 자체도 매체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 여기에 체계이론 기반의 매체 이론에서 코트 하슨즈(Talcott Parsons)는 “의사소통을 행위 단위들 사이에서 공통된 코드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파악하고, 전체 사회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교환매체로서 화폐, 권력, 영향력, 가치 구속력”을 언급했다. 또한 파울슈티히(Faulstich)는 매체를 “사회적인 지배력과 특정한 능력을 지닌 조직화된 의사소통의 통로를 둘러싼 제도화된 체계”로 규정짓고, 의사소통 기술이나 정보저장체가 사회적 조정 및 방향 설정의 기능을 지닐 때 매체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했다.⁷⁾

이처럼 매체가 “사회적 조정 및 방향 설정 기능”을 지닌다고 이해하면, 매체는 단순히 추상적인 저장을 가능케 하는 상징체계이자 도구에 한정될 수 없다. 매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의미를 지니는 조직이나 제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 과정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매체가 위치한 사회적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곧 매체는 전달의 도구가 아닌, 실천적인 문화적 효과를 가져 오는 사회적 소통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매체가 새로운 소통 체계의 도구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상식적인 이해나 인쇄매체

6) 김기란, '한국 근대계몽기 신연극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9~20쪽.

7) 베르너파울슈티히(황대현 옮김),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지식의 풍경, 2007, 10~12쪽.

가 처리하는 정보에 집중하는 태도만으로는 근대계몽기, 소통 체계의 변화가 가능하게 한 인간의 인식과 감성구조의 변화를 면밀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근대계몽기 사회적 의사소통 체계로 기능했던 신문매체와 문학장이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고찰하려 한다. 특히 1898년 8월 10일 창간되어 1910년 3월 31일까지 한글 표기로 발행된 『제국신문』⁸⁾에 실린 여성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근대계몽기 여성인식이 매체의 코드화에 의한 일련의 사회적 소통과정을 통해 개연성(Wahrscheinlichkeit)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결과물인 신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로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당대의 이념이 매체를 통해 개연화되는 소통의 과정에 집중하려는 본고의 목표는 그러므로 신소설이라는 장르적 존재의 규명에 놓여 있지 않다. 그보다는 『제국신문』의 여성 관련 기사에서 드러나는 관념적으로 상상된 여성성(Women)과 현실 속 여성(women)에 대한 인식이 매체의 코드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되며 개연적인 여성인식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곧 여성 주인공을 내세우고 여성 독자를 의식한 순한글 표기를 선택한 새로운 문학 장르 신소설의 등장에 주목하여, 문학 장르라는 개연적 상태가 사회적으로 외화되기까지 『제국신문』이라는 매체가 매개한 여성인식에 대한 사회적 소통 과정을 분석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표다. 이를 통해 매체와 문학이 상

8) 1898년 8월 10일 창간되어 1910년 3월 31일까지 발행된 『제국신문』은 『제국신문』사의 창간멤버이자 사장이었던 이종일이 자신의 일기체 메모인 <목암비망록>을 통해 “부녀자 계몽지”로 만들 의도에서 창간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한글 전용이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표기체계를 통해 출발부터 여성을 위한 신문임을 분명히 표방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국신문』의 특징에 착안, 『제국신문』에 게재된 여성 관련 기사나 여성 독자투고 기사에 주목하여 이 시기 여성계몽담론을 고찰해 왔다. 가령 “『제국신문』은 암신문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여타 신문에 비해 당대 여성의 목소리가 독자투고의 형태를 빌어 보다 활발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4, 70~71쪽)는 전제는 그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지만, 여성이라는 소재 자체에만 집중하여 “암신문”이라는 『제국신문』의 특성을 매체적 특성에 주목하여 총체적으로 고찰하지는 않았다.

호 교섭하는 문학장 내부의 코드화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근대계몽기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이 당대 어떤 의미론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제국신문』이라는 매체

1907년은 근대계몽기 여성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절점(結節點)을 보여준 해다. 구체적으로는 근대계몽기가 요구한 이상적 남성성을 전유한 새로운 자질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인직의 『혈의 루』⁹⁾가 신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형태로 1907년 간행되었고, 신문의 소설 지면 활성화와 함께 여성 독자를 의식한 소설 작품들이 여성 위인전인 <애국부인전>을 비롯 활발히 간행¹⁰⁾되기 시작했다. 또한 1907년에는 고미숙이 지적한 것처럼 “여성을 근대적 국민의 일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계몽의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뚜렷한 계기”¹¹⁾라고 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1898년 <여권통문(女權通文)> 이후 미약하나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여성들의 사회적 발언이 사회적 실천으로 구체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제국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1907년 『제국신문』의 지면은 국채보상운동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리만큼 국채보상운동의 시작과 진행, 그 과정의 에피소드를 특히 여성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1907년 2월 16일 대구 대동광문화 회원 서상돈의 발의로

9) 이인직의 『혈의 루』는 1906년 7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회에 걸쳐 『만세보』에 연재되었다. 이후 1907년에는 김상만 서포에서, 1908년에는 광학서포에서 출판되었고, 1912년에는 식민지 검열에 따라 여러 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목단봉>이라는 제목으로 동양서원에서 출판되었다.

10) 박진영, '번역·번안소설과 한국 근대소설어의 성립',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72쪽.

11)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95쪽.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린 후, 『제국신문』은 1907년 3월 15일 <경고 일천만 자매>라는 제목의 잡보를 통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하여 “여자교육회장 이옥겸, 리숙자, 김운곡, 박주경, 박청운, 정경옥, 이형렬, 진정옥, 김영자, 신여자등 제씨가 발기하여 대한일천만 자매의게 공고한 전문이 본사에 래도”하였다고 소개한 후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전 『제국신문』에 투고된 여성독자들의 글에서는 투고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고 일천만 자매> 잡보에서는 발기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이어 1907년 4월 1일자 잡보에서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인천 지역 기독교여성들의 모임을 소개하는 등 『제국신문』은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촉발된 여성들의 사회 참여 양상을 부지런히 기사화했다. 이는 제국신문사가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정치현실을 감안한 냉정하리만큼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과는 대비된다¹²⁾는 점에서 주목되는 태도이다.

한편 『제국신문』 내부의 변화도 감지된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재정난 등으로 1907년 9월 20일 폐간을 선언하고 발간을 중지했던 『제국신문』은 10월 3일부터 다시 신문을 간행하지만 곧 “출세지향형 친일파”로 분류되는 정운복이 신문사를 인수한다. 이미 1907년 3월 6일부터 수회에 걸쳐 논설 난에 이준 검사 사건에 관한 연설문을 게재한 바 있는 정운복은 1907년 6월 8일자 논설 <첫 인사>를 시작으로 ‘탄해생’이라는 필명을 통해 주필로도 활동한다.¹³⁾ 그런데 정운복이 제국신문사 사장에 취임하기

12) 『제국신문』은 1907년 2월 16일자 잡보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린 후 같은 해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채보상금 모집에 관한 스정>이라는 기사를 게재한다. 이들 기사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자체가 국가의 독립기초가 보이는 일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완전한 국채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모금과정의 폐해를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3월 1일자 잡보에서는 신문사무의 분망함과 의연금수집소가 다른 곳에 많이 생겼음을 들어 제국신문사는 의연금을 수납하지 않겠다고 밝힌다. 이어 5월 30일자 논설에서는 <국채보상금 처리의 곤란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국채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의연금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최기영, 『<제국신문> 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61~62쪽).

전후 제국신문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제국신문』의 지면을 확장하여 소설 지면을 신설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특히 흥미롭다. 1907년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미 『제국신문』은 “소설”이란 표기 아래 작자 미상의 <허생전> 연재를 시작한 바 있다. <허생전> 연재가 끝난 후인 5월 4일, 『제국신문』은 새삼 “간신이 기계를 구득하고 부족함 주장을 준비하여 방장설비준이온즉 이달 십륙일부터는 지면을 넓혀 신문면목을 일신케하고 문설과 소설도 일층 주의하여 사회의 정신을 디표하려니와 관보와 외보를 기지하여 첨군자의 스랑하시는 후의를 감고져 호오니 더욱 스랑하시기 바라오며……”라는 <특별고백-본보 확장하는 일>을 신문의 앞 장 논설란 앞에 게재하며 소설 지면 확충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정운복 취임 후 제국신문사에서 진행한 소설 지면의 확충은 당시 대중들의 인기를 끌던 신소설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고 이는 제국신문사의 재정난을 돌파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국신문사는 신소설을 기대하던 1907년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적극 수용하여 “문설과 소설도 일층 주의하여 사회의 정신을 디표”하겠다는 특별고백을 통해 제국신문사의 신문기자였던 이해조의 신소설 <고목화>, <빈상설>, <구마검> 등을 연재할 준비를 갖추나갔던 것이다.¹⁴⁾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국채보상운동이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신소설의 영향력을 인지한 『제국신문』의 경우만 생각해도, 1907년의 상황은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취로 기록될 만하다. 그리고 1907년의 여성과 관련한 대사회적 반응을 단순

13) 1907년 5월 17일자부터 6단으로 지면을 확충한 『제국신문』은 6월 7일자로 편집진을 보강하는 사고(社告)를 낸다. “본사 편집원은 정운복씨로 추천되야 금일부터 일반 편집사무를 담당사무호으며 물리학과 소설은 박정동, 리인직, 이해조 삼씨가 담당 더술한대 이상제씨는 본 신문이 우리 한국 개명기관에 요점됨을 생각하여 보슈의 다소를 구의치 안코 다 즈원 근무호오니 일반동포는 조랑하시기 바라오”

14) 이인직의 『혈의 루』 하편도 1907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자까지 연재되었으나 같은 해 7월 이인직이 『만세보』를 인수한 대한신문사의 사장에 취임하면서 곧 연재가 중단된다(최기영, 『<제국신문> 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46~48쪽).

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학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인식과 관련하여 비(非)개연적이었던 상황이 개연적인 상황으로 수용되는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매개한 『제국신문』의 매체적 기능이다. 루만(Luhmann)은 “매체들이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교환매체들”이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문자 자체는 매체가 될 수 없지만 문자가 편지나 서적과 같은 매체와 결합되어 기억이나 경험을 매개하고 교환가능한 상태가 되면 매체적 성질을 지닌다고 본다. 이때의 교환가능성이란 매체가 상대적으로 비(非)개연적인 소통을 성공하도록 뒷받침해주고, 비(非)개연적인 소통이 사회적 신뢰감을 조성하여 개연적인 것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발휘할 때 성립한다. 가령 당시 김규홍의 첩으로 애국계몽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것을 알려진 신소당의 경우, 당대의 맥락에서는 특이한 여성 존재로 현실을 반영한 개연성을 담지한 인물로 수용되기 힘들다. 하지만 이런 비(非)개연적인 인물이 매체를 통해 매개, 소통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개연화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매체가 지닌 이런 기능 때문에 매체 내부의 코드화가 충분한 사회적 신뢰를 얻어 예측 가능할 만큼 일관되게 사용되면, 매체는 복잡한 사회적 체계들의 분화를 야기하는 촉매로 간주¹⁵⁾된다.

『제국신문』이 교환가능성을 지닌 사회 소통 체계로 작동하며 비(非)개연적인 것을 개연적인 것으로 안정화 시키는 매체의 기능을 보여주는 정황은 『제국신문』 지면 간 활발한 소통¹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관련 기사에 한정한다 해도, 『제국신문』의 논설란¹⁷⁾과 잡보란은 취재

15) 니클라스 루만(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15~16쪽.

16) 제목을 큰 활자체로 강조한 1907년 3월 9일자 잡보 <의무교육 실시>에서는 평양에서 실시 예정인 의무교육에서 “기타 나이많은 자들은 한문신문과 국문신문을 슈삼인식 처럼ㅎ야 보게 ㅎ앗더라”라는 내용을 통해 신문이 교육자료로 활용되며 소통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한다. 또한 1907년 4월 3일 잡보에는 유지부인 이소사가 신문 덕분에 세상사정과 애국사상에 눈을 뜨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성의로 지전 이원 십전을 동봉하고 특별 기고한 글이 실려 『제국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된 사건을 전하거나 독자들의 투고 글을 실는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각각의 지면 기사에 대한 반응과 이전 기사에 대한 후일담을 다시 기사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1903년 4월 16일자 논설 <녀즈교육의 관계>에서처럼 “본인이 비록 성품이 어리석고 학식이 천루하느 두어마디 관계됨을 설명하니 그릇된 말은 유지군자 계시거든 발키 가라쳐 주시오”라고 하여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나, 잡보 기사에 대한 논평이 논설란에 실리고 잡보 기사에 대한 후속 조치나 후일담이 다음 날 잡보란에 실리는 방식이었다.

한 예로 1900년 12월 1일자 잡보에는 “전 찬경 민치현씨는 과부기가법을 터셔 과부 혼인이라도 레를 갖초아 신랑신부와 갖치 지너게 흐자고 상소흐엿다더라”는 과부개가법의 발의를 알리는 기사가 실린다. 이어 12월 4일자 잡보에는 “회계원경 민치현씨가 과부기가흐기로 상소흐엿말은 이왕 괴지흐엿거니와 비지가 나리시기를 정부로 흐여금 품쳐흐라 흐섯는 지라 그 상소스의는 이십새 이하 과부는 초취일레로 혼인흐고 삼십세까지는 직취로 혼인흐고 스십세이상 과부는 마음디로 흐되 무론 몇살된 과부든지 누가 억지로 강박흐는 자는 일률 시형흐기로 혼다더라”고 하여 과부개가법의 시행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린다. 이어 과부개가법 시행에 대한 대사회적 반응이 상소문의 형식으로 12월 5일자 논설란에 별보¹⁷⁾로

17) 제국신문의 논설란은 1907년까지 사장이었던 이종일이 주필(主筆)을 겸임하여 신문 논설의 대부분을 집필해왔다고 주장되지만, 실제 <제국신문> 논설란의 입장과 시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논설기자인 주필을 구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1907년 1월 9일자 <편집여록(編輯餘錄)> 기사를 보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강해진다. 기사에서는 “기즈스 무 잘할 사람 스면으로 방구흐되 구지 부득할 슈 업고 제국신문 논설 견습 구한 지가 슈년이나 가부간 누구던지 즈원자가 영무흐니 민망답답 기막힌다 그 중에 국문신문 한문 보다 용이할 듯 남보기가 가소롭되 논설할자 아조 업서 신문유지 극란흐다”고 했는데, 실제 제국신문사는 1901년부터 1903년까지는 옥중에 있었던 이승만의 도움을 통해, 그리고 1905년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여러 미국유학생 혹은 이민자나 독자들이 보낸 투고문인 기서(奇書)를 통해 논설란을 채울 수 있었다(최기영, 『<제국신문> 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46쪽).

18) “음란혼 풍속이 변흐야 단정혼 풍속된 것이 아람답지 아님이 아니로되 당초의 법

게재되고, 1898년 11월 10일 잡보에는 첩 노릇하는 여성을 비하한 11월 7일 자 『제국신문』의 논설을 문제 삼은 독자의 투고글을 신는다. 독자의 항의에 대해 제국신문사는 “우리가 신문에 첩이 천하다고 혼 말은 상하 귀천 물론하고 남의 시앗 노릇술 흐거나 탕잡흔 거슬 천하다고 혼 말이 오 상차흔 딛던지 과부되여 기가흔 시름을 나물인 말이 아니어니와 이 편지를 보니 기명에 유위흔는 므음이 감스흐야 발간흐니 아모쵸록 우리 신문 보는 부인들은 이런 편지한 부인에 뜻과 갖치 진보흐기를 힘쓰시오” 라는 해명 기사를 실어 기민하게 대응한다.

기사 간 소통 방식이 첨예한 사회·정치적 성격의 사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1902년 12월 11일과 12일자 잡보는 사건과 그 사건의 후일담을 연속적으로 전하며 마치 연재소설 같은 형식을 구성한다. 김명돌의 처 실종사건과 그에 따른 폭행사건을 전한 11일자 잡보에 이어 다음 날인 12일자 잡보에는 김명돌의 처를 그 의숙모인 조건식의 처가 돈 300량을 받고 가평군에 사는 사람에게 방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게재하여 김명돌 처 실종사건의 후일담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전 중추원 의관 리승만씨가 감옥서 죄슈가 된 지 오린 고로 그 부인이 즈기 남편을 위흐야 상소를 스스로 지어 써 가지고 직작일에 인화문 밖 썩 가서 복합을 흐다니 부인이 즈기 남편을 위흐야 상소흐는 뜻슨 뉘 장흐다 아니 흐리오 흐더라”¹⁹⁾는 기사에 이어 3월 27일자 잡보²⁰⁾에서는 문제의 주인공인 이승만 처의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종결되었는지를 자세히 게재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을 마련흔 뜻은 썩흔 형벌흐야가며 업흐게 금흐라는 것이 아니어늘…….”

19) 「잡보」, 『제국신문』, 1899년 3월 25일.

20) “감옥서예 갖친 중추원 전 의관 리승만씨의 부인이 즈기를 가두고 즈기 남편을 노와 달라고 인화문 밖썩서 상소를 흐너라고 잇흘을 업디엇더니 궁너서 순검의 말이 칩입관 외에는 상소를 못 흐기로 향일 관보에 장녕이 낮고 상소홀 만흔 일이 잇스면 중추원으로 현의흐면 중추원에서 회의흐야 의정부로 통첩흐면 의정부에서 상주흐는 거시어늘 여긔서 뵙날을 잇슬지라도 격식이 틀너 그 상소를 밋아드리지 못흐겟스니 중추원으로 가라흐기로 그 부인이 중추원으로 가서 현의서를 드린다 더라”

이처럼 『제국신문』은 매일 간행되는 일간지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여 여성관련 기사를 포함한 각종 사회·정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을 실시간 매개했다.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소통의 과정을 매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899년 4월 27일자 논설에는 “……근일의 시무를 안다는 선비들은 대한의 약함이 남주의 실학 공부를 아니 하느니 잇는 줄만 아나 그 실상은 대한의 간난함이 녀인들의 놀며 먹고 공부 아니 힘으로 말미암아 그러흔 일이라. 작년에 경성 사는 모모 부인들이 녀인의 무식함이 남주의 하수가 됴을 썩닷고 분히로 녀여 녀학도의 교육함을 즈기의 담척으로 알고……”라는 기사가 게재된다. 이는 몇 개월 전인 1898년 9월 1일 북촌의 부인들이 발표한 조선 최초 여성들의 근대적 권리 선언이라 평가되는 <여권통문(女權通文)>에 대한 논평이다. 주지하다시피 <여권통문>은 『황성신문』에는 1898년 9월 8일자 논설란에 <오백년유(五百年有)>라는 제목으로, 『독립신문』에는 9월 9일자 여학교란에 <여권통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²¹⁾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암신문으로 알려진 『제국신문』에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의 전문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대신 <여권통문> 발표 하루 뒤인 1898년 9월 9일자 잡보에 “북촌에 었던 부인네들이 부인회와 녀학교를 설시하련다는 말은 전호에 기지하엿거니와 어제 황성신문을 본즉 리소스와 김소스 두 부인이 녀학교 설시하는 스실과 입학 권면하는 말노 광고를 써서 돌넛는지라 우리나라 부인네가 이런 심각이 잇슬 줄을 엿지 썩이나 꾸엇스리오 진실노 희한은 일이로다”라고 하여 여권 선언문을 한갓 “희한은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앞서 1899년 4월 27일자 논설을 통해 실제로는 제국신문사가 <여권통문>이 일으킨 사회적 반향을 예의 주시하며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제국신문』은 부인회와 여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안을 1907년²²⁾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기

21) 이송희, <한국 근대사 속의 여성 리더십>, 《역사속의 여성리더십》, 한국여성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1, 179쪽.

22) 이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된 경우는 대강 정리해보아도 1899년 5월 18일 논설,

사회했다.

여성관련 기사에 한정한다 해도, 『제국신문』은 사회적 공론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의견들을 상호 매개하며 사회적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너즈도 우리 대항대폐하에 적즈는 일반이온디”라는 논리를 내세워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했던 당시 여성들의 인식이 개연적인 것으로 수용되어 사회적 실천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사회적 소통 과정을 매개하여 “사회적 조정 및 방향 설정 기능”을 작동시킨 매체, 『제국신문』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제국신문』이 폐간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세웠던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감화의 효과, 이에 호응하듯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보내주었던²³⁾ 여성 독자들의 존재 역시 당시 『제국신문』이 내장한 매체적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다. 『제국신문』이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과정을 매개하는 매체적 효과를 본격화하는 상황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여성인식을 사회적 코드로 구조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1901년 4월 5일자 논설, 1901년 6월 8일자 논설, 1903년 4월 11일자 잡보, 1903년 4월 16일 논설, 1907년 1월 8일자 논설, 1907년 2월 23일자 외보, 1907년 2월 19일 잡보, 1907년 3월 16일 잡보 등이 있다. 그 중 <부인학회의 취지와 전진하는 삼틱>라는 제목의 1907년 1월 8일자 논설이다. “……지금 슈삼쳐 녀학교가 싱것는 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장력에 도흔 결과를 얻으려니와 부인회라 녀즈교육회라 하여 날어나는 디는 그 흥동을 살펴보건디 본디 학식업는 녀즈들이 모혀서 즈고이리로 듯도 보지 못하던 일들을 흥한즉 즈연 규모도 정제치 못하고 쏘한 종종 연설을 한다 토론을 한다 하니 그 중에 학식잇는 교스가 잇다던지 점잔은 남즈가 잇셔서 지도나 하면 혹 효험이 잇슬이라 흐려니와 그러치 못하고 다갓치 학문업는 녀즈들이 어디로 죠차 아롭다운 결과를 얻으리오……근일에 사회상 유지 혼 몇몇 사람들이 발기하야 부인학회를 조직하되 그 부인회회는 녀즈에게만 맞게 두지 안코 각기 부인의 가장된 이들이 찬무회를 조직하야 부인회중 스무를 감독 하고 그 학회 처소는 교동 운현궁 건너 녀학교로 덩하고 그 학교 녀학도들이 휴가 하는 공일마나 모여가셔 삼시간식 공부를 하고 헤어지는 디 일본 녀학교 교스 령 목녀스와 기타 유지혼 부인이 담장하야……”

23) 「잡보」, 『제국신문』, 1907년 9월 11일과 「잡보」, 『제국신문』, 1907년 10월 3일.

3. 『제국신문』의 두 개의 여성 이야기-열녀/非열녀의 코드화

『제국신문』 잡보란에 실린 여성과 관련된 기사 대부분은 정숙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희생하여 가정을 수호하는 열녀담과 무당, 기생, 첩과 간음한 ‘소사’²⁴⁾들이 일으키는 사기와 살인 등의 가정분란담²⁵⁾으로 양분된다. 죽은 남편의 뒤를 좇아 목숨을 끊는다든가 손가락을 잘라 부모의 위중한 병을 고치는 등 자신의 생을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정숙한 여성들의 이야기²⁶⁾는 반(反)근대적 요소가 다분함에도 『제국신문』에서

-
- 24) 1900년 4월 17일자 잡보. “동대문밖게 사는 박영진씨는 무삼 간음 등스로 그 처의 무함하는 루명을 덧고 분심을 참지 못하여 삼일 전에 양지물을 먹고 당장에 세상을 버렸더라”/ 1907년 5월 9일자 잡보. “작일 한성지판소에 서서 만리지 인민 스 오십명이 제진하여 등소하였는디 그 스실인 즉 히동에 스는 서가위명자가 그 이 옷집 리가의 안회를 증통하다가 본부에게 발각되미 본부는 그 계집을 간부에게 맞기고 다시 장가들 부비 일만량을 징급할 뜻으로 수표를 밧았더니 서가가 도로 히 한성지판소에 덩소하여 그 슈표를 환츄코즈 흠으로 일동 인민이 공분지심을 이기지 못하여 등소하고 서가의 유부녀 통간한 죄를 징치하여 달나 흠이라더라”/1907년 1월 4일자 잡보 <가위건송(可謂健訟)>. “창원항에 스는 홍달건이라는 자이 그 이외종간 되는 누의에 집에 즈쵸 심방하여 단이다가 그 누의와 갖치 통간이 되었던지……”
- 25) 1900년 9월 13일자 잡보. “지금 북촌에서 사는 녀인이 리소스라고도 하고 죠소스라고도 하는 계집 하나히 나히 근 삼십되는데 오륙년 전에 북촌 어느 직상과 흠씨 술다가 즉시 나와서 증부골 근디에서 살며 안협군슈 전아모와 살자하여 돈 십칠 만량을 건물훈 후에 직판스지 하고 탁국으로 다니며 뮤슈히 협잡하다가 타국에서 징역스지하고 년전에 도로 나와서 남촌 사는 쵸아모와 갖치 살자 하고 돈 몇만량을 켜아서 먹은 후에 장안부차 몇몇을 적어 가지고 다니며 살자고 즈청하다가 지금 북촌 사는 착슈훈 오천 석하는 진스훈 소년을 췌여 흠씨 사는데 그 소년진스가 그 간특한 계집 췌임에 빠져 꺾가하는 것을 미우 이석히 녀인다하며……”
- 26) 1900년 6월 23일자 잡보. “충청북도 단양군 북면 안동리 사는 장하식씨의 처 도씨는 지금 나히 미란 이십인디 본디 식부모에게 효행이 특이하여 일항이 칭도하더니 본년 삼월분에 그 가부 장씨가 불행단명일시 도씨가 두 번 단지훈 후 필경 그 가장이 죽는 날 싸라서 목을 밧어 세상을 버렸는지라. 일항 대소 인민들이 그 도씨의 효렬이 구전흠을 포양하자고 탄복하여 부군에 호소하고 장췌 상언스지 헝기로 한다더라.”/1901년 6월 10일자 잡보. “……현씨의 부인 경췌 최씨는 이십세에 가장을 여의고 다만 그 시어미니와 녀식만 잇는디 지성으로 시모를 봉양헝기를 굶급도 게을니 아니하다가 그 로모가 병들어 세상을 바리미 최씨가 이에 망극하

상찬의 대상으로 기사화되는 반면 간음한 여성, 첩, 무녀, 기녀는 사회의 악덕으로 지목되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제국신문』의 잡보란에 실린 남성들의 미담이 선정을 펼친 지방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촌부, 신문의 기능을 긍정하고 격려하는 개화 지식인 등 다양한 인물들에 포진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여성관련 미담이 단일하게 조선조 열녀들을 환기시키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근대계몽기 여성인식의 특이점이라 하겠다. 이는 근대계몽기 여성들이 개인적 여성(women)의 차원에서 인식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격려 받아 마땅한 여성성(Women)으로 인식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곧 현실의 개별적 여성(women)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며, 전통적 윤리에서 발견된 새로운 민족공동체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정한 여성성(Women)만이 새로운 표상들이 추천되던 당시 계몽담론 속에서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할 여성성과 비판받아 마땅한 여성들이 대립적인 한 쌍을 이루는 정황 속에서 『제국신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열녀이거나 열녀가 될 수 없는 비열녀로 귀결되는 바 이는 매체를 통한 코드화²⁷⁾ 과정으로 이해된다. 『제국신문』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지면인 논설과 잡보는 여성관련 기사에서 지면의 구획을 넘어 열녀/비열녀의 기사를 소통시키며 열녀/비열녀의 코드를 개연적인 것으로 강화시킨다.

『제국신문』의 열녀/비열녀의 코드는 ‘가정’이라는 컨텍스트를 매개로

야 손가락을 쓴어 피를 흘녔씨니 그로모가 회싱하야 일년을 더 살랏고 그후에 삼년상을 레로씨 지니고 심지어 그쇠모의 친구가 오계되면 그쇠모 살아쓸 씨와 갖치 디접하는 레절을 지성으로 흐미 일항이 최효부라 칭도흐며 여러 선빅들이 히군과 관찰부를 거쳐 장례원에 정하야 포양하야 달나고 햏햏터라”/부모상을 지내다가 죽은 남편 원씨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 조용히 목을 달아 자결한 여인 이야기를 전하는 <잡보-후부자결(後夫自決)>, 『제국신문』, 1907년 5월 3일자.

27) “코드란 두 개의 값을 갖는 단위로 그 중 하나의 값이 다른 값을 동시에 대표하는 단위이다. 코드는 차이의 통일이라는 형식을 갖되 이 형식의 한 면이 형식 자체를 대표한다……코드는 그에 상응하는 감정들이 형성되도록 고무한다.”(니콜라스 루만(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71쪽.)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개연화된다. 곧 열녀와 非열녀를 차이화하기 위한 주요 전제로 가정의 보존 여부가 맥락화된다. 『제국신문』에 등장하는 가정을 보존하는 열녀와 가정을 파괴하는 非열녀 이야기가 내장한 의미론은, 이후 가정이 민족 혹은 국가의 은유로 수용되면서 가정의 보존이 민족 혹은 국가의 보존이라는 개연성을 확보하는 포석으로 기능하게 된다. 한 예로 1907년 1월 31일과 2월 1일 2회에 걸쳐 『제국신문』에 연재된 가정분란담의 전형을 보여주는 잡보 기사를 보자. 잡보의 기사는 전라북도 고부군 말목장터 안 동리의 조가 제족 마을에서 일어난 어린 신랑이 혼사날 신부와 신부의 간부에게 죽음을 당한 살인사건을 전한다. 신문에 실린 기사임에도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서사를 구성한 잡보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관찰부에 보고하기를 그 계집아히는 당장에 장사에서 타살하자고 하였더니 관찰부에서 옥테가 죽대하니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기다려 거행하자 하여 각도각군으로 회시후 본도에 환슈하라 헛지라 음력 십월 일일부터 그 계집아히를 다리고 남북도 각군으로 단이며 그 스실을 설명하느니 일전에 공주군에 걸쳐서 지금 충청북도 청주지방으로 갔느니 그 계집아히의 코를 꿰고 털스를 썬여 쓰고 단이고 의복은 그 신형 썬 입었든디로 록의홍상에 당의와 족도리를 쓰였고 그 죽은 간부 아히놈은 그 계집아히의 외륙촌 되는 놈이라더라. 슬흐다 즈고이리로 강상대변이 허다하거니와 엇지 이럿케 룡칠명이 일시에 죽는자 어디 잇스며 또한 남의 죽음을 맞지안코 즈결하기를 그갓치 용이케 헛 자 어디 잇스리오 무섭도다 간음에 폐단이여(완)” 이 기사는 육하 원칙에 충실하여 객관화된 사실을 전해야 하는 신문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간음의 폐단을 한탄하는 기사작성자의 논평을 달아 실재(實在) 사건의 단순한 전달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마무리를 보여준다.

그런데 짤막한 논평을 덧붙임으로써 위의 기사가 환기시키고자 한 문제의식은 이미 10여 년 전인 1898년 11월 7일자 『제국신문』 논설에서 토로된 바 있다. 이 논설에서는 반상의 구분이 없어진 지금 정실과 천첩의

등분마저 없으면 명분이 뒤섞여 축첩제와 같은 나쁜 풍속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첩과 천기를 “행동 처신이 탕잡한 계집들”로 일반화하고, 부인회 사업에도 규칙을 세워서 “남의 첩 노릇하는 계집들은 일절 동등권을 주지 말아 등분을 밝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인회 같은 여성 계몽사업에서도 첩과 천기는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음을 주장한 이 글에서 “탕잡부랑한 행실”을 하는 여성으로 지목된 첩과 천기들은 10년 후 『제국신문』에서 가정분란을 일으키는 간부(奸婦)들로 구체화된다. 10여 년의 시간에 걸쳐, 논설을 반박하는 독자의 반응,²⁸⁾ “리쵸 량성으로 hing세히는 계집이 너외국에 립왕하며 부자를 유인하야 죄물을 탈취하고 또 외국에 증역도 하였다고 일전 본보에 괴지하였더니 다시 드른즉 다 허무흔 말이기로 정오호노라”²⁹⁾라는 여성에 대한 음해성 소문, 무당과 관수는 일개 ‘병인’이고 성치 못한 사람이니 이들의 말을 성한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³⁰⁾가 『제국신문』 안에서 서로 매개되고 소통되는 가운데 뚜렷한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주장되었던 논설 속 非열녀들의 부정적 측면이 개연적인 실재(實在) 사건으로 구체화되는 정황을 『제국신문』은 보여주는 것이다. 『제국신문』이 여성에 대한 당대 사회적 인식을 구조화한 코드 즉 열녀/非열녀라는 이항대립항은 그 차이를 통해 전통적 윤리에서 발견된 새로운 민족공동체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정한 여성성을 존경과 보존의 대상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그 각각에 주목하기 보다는 함께 분석하여야만 당대의 의미론을 추출할 수 있다.³¹⁾

근대계몽기 ‘가정’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작동되었던 열녀/非열녀 코드는 열녀라는 대표적 체계와 의미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근대계몽기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와 맥락 속에서 열녀라는 체계와 의미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확정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확

28) 「잡보」, 『제국신문』, 1898년 11월 10일.

29) 「잡보」, 『제국신문』, 1900년 10월 3일.

30) 「논설」, 『제국신문』, 1901년 4월 22일.

31) 박애경, '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여성문학연구』 19호, 여성문학학회, 2008의 논의는 이런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장³²⁾시켰다. 곧 가문을 수호하는 정숙한 여성,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열녀의 의미가 비(非)개연적인 것으로 탈락하는 대신, 근대계몽기가 요구하는 여성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열녀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그것이 사회적 의미론으로 확정될 수 있는 개연적인 것으로 안정화되어 간 것이다. 이는 한 사회의 특정 관념과 관련된 행위,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의 걸모습, 미사여구, 격언, 속담 등이 전승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코드화된 의미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강화되며 새로운 사회적 전망을 열어주는³³⁾ 효과를 창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이해된다.

물론 안정화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강화되며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열녀/非열녀의 코드 차이를 통해 근대계몽기 열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며 안정되는 과정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던 열녀가 미국 하버드라는 현실적 공간으로 유학 간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는 열녀로 변화되는 지점에서 포착된다. 1907년 4월 25일자 잡보 <북미통신 제 일>에서는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중이던 한인 학생 윤병구가 소개되었고 같은 날 잡보의 다른 지면에서는 윤병구의 고향으로 인한 딱한 가정사정이 전해진다. 정리하자면 본래 가산이 넉넉지 못한 집안의 가장인 윤병구는 유학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가족 걱정으로 유학을 망설이는데, 윤병구의 처 안원규는 자신이 생계를 꾸려 나갈 것이라고 설득하여 윤병구를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보냈다는 내용이다. 잡보는 본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의 친구들은 안씨를 본받을 것이며, 아내되는 자들은 만리타국에서 고생하는 유학생 가장들을 너무 원망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마무리된다. 이 기사는 남편을 유학시키고 그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 부인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장을 원망하는 부인이 근대계몽기의 새로운 열녀와 非열녀의 의미론으로 차이화 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32)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129쪽.
 33)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위의 책, 20쪽.

나아가 가정 안에 머물며 가정을 지키던 여성들이 사회 계몽 사업의 실천에 앞장 서 모범적으로 민족의 과업을 함께 하거나 대장부 못지 않은 민족애를 발휘하는 사례를 통해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행위로 분류되어 온 행위를 전유함으로써 근대계몽기 여성들이 계몽과 민족애의 표상으로 안정화³⁴⁾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도 발견된다. 가령 1907년 2월 19일자 잡보³⁵⁾에서는 여학교에서 부인학도들을 가르치는 전 감리 하상기의 부인이 학도들이 답례로 보낸 선물을 정중히 거절한 사건을 보도하며 그녀의 청렴한 선택을 격려했고, 1907년 2월 16일자 잡보에서는 “일본 류학상의 학즈금 연조로 구화 이십륙원을 보낸중 십이세 녀아 리상길과 팔세 여아 김녕희가 귀신문의 광고를 보고 강기지성이 고발하야 즈원 연조하는 지경에 닐으니……숱흐다 더 어린 녀즈들의 열심을 보건디 소위 대장부 명식으로 국가스상이 업는 자야 엇지 족히 나라 빅성이라 칭흐리오”라고 하여 “어린 여자들”의 민족애가 대장부 못지 않음을 칭찬한다. 이는 조선조 열녀가 독점했던 칭찬받아 마땅한 여성성이 근대계몽기가 요구하는 이상적 남성성을 전유한 여성성으로 변화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대계몽기가 요구하는 이상적 남성성을 전유한 여성성이 개연적인 것으로 안정화되는 징후는 앞 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둘러싼 여성들의 활발한 실천, 그리고 그런 여성성을 형상화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신소설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 국채보상금 모금 운

34) 나아가 1907년 2월 23일자 외보의 “영국 서울 론돈에서 다수훈 부녀들이 선거법에 참여할 권리를 엇으라 하야 하의원에 모아 갓난디 엇지 폭동이 되앗던지 그중에 명의부녀는 부상하고 룡십명은 포박이 되앗다더라”라는 기사를 통해 여성들의 권리 참여가 국가와 충돌을 해서라도 획득해야 할 가치로 인식됨을 전한다.

35) “전 감리 하상기씨의 부인이 남누 안 탈성 여학교에 날마다 나디며 부인학도를 가르치는데 그 답례로 학도들이 선물을 보내자 정중히 사절하며 “너가 외국에도 나아가 구경도 하얏거니와 이런 일은 보지 못하얏고 이제 만일 우리나라 풍속으로 소위 교스명식이 학도의게 세찬을 받게드면 그중 빈한흔 스랍도 괴어히 남의게 뒤지지 안이하라 하며 빗이라도 너여 물선을 작만홀터인즉 후일에 크게 관계된다 하얏다더라”

동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들은 자발적 모임인 ‘폐물폐지회’³⁶⁾을 만들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며 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을 때, 이를 수렴하여 반영한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신소설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렇게 등장한 신소설에 대한 폭발적 인기는 곧 그 안에 구축된 여성상이 당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개연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제국신문』의 기사와 『혈의 루』의 서사-열녀/非열녀 코드의 확장, 문제적 두 여성 주인공

근대계몽기 출현한 문학 장르 신소설은 『제국신문』 기사에 담긴 여성

36) 1907년 4월 4일자 잡보. “심화항 김경지씨 부인 김씨가 녀인들의 껍물을 폐찌하야 국채보상 하자는 회를 조직하고 그 취지서를 보냈기로 자에 고지하노라. 은금보 찌폐지부인회취지서. 대더 부모가 빛이 잇싸면 자손이 담당할 바요 국가에 빛이 잇싸면 국민이 담당할 의무라 국가가 완전치 못하면 엇지 안보하리오……무론 남 녀로소하고 가로상에 연초를 먹는다거나 의연금 모집에 수수방관하거나 혹 협잡 하거나 방희하는 자는 결단코 디한 동포가 안이오 국가에 죄인이라……복은 우미 한 한 기 여자로 문건이 견미하여 감이 세상사를 장황 론설할 수 업스나 쏘한 화 육중 인물이라 감격한 마음을 의의치 못하며 례절을 숨히지 못하고 황송을 무릅 싸 존장에 우미한 소견을 적싸와 외람이 전국부인동포좌하에 복고하옵나니 바라 옹건디 첨부인은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잠간 구버 감하옵쇼셔……”/ 1907년 4월 3 일자 잡보. “유지부인-이소사가 신문 덕분에 세상사정과 애국사상에 눈을 뜨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성으로 지전 이원 십전을 동봉하고 특별 기고함.”경제자 본인은 하향벽을 일기 녀즈로 세상에 싱겨난 후 발츠죄난 성분받게 써나지 못하 였스니 안증방이와 달음업고 눈은 한줄 글을 보지 못하얏스니 장임이나 달음업스 오나 이것은 우리나라 풍속이 녀즈에게난 교육을 허지 안이하고 학문을 갈아치지 안이흔 연고라 본인이 미양 혼즈 탄식홀 쑤이거니와 이위 가뎡교훈을 밧아 여간 국문을 학습하와 가장이 상판츠로 출타한 후면 고담척이나 보옵다가 근자에 귀사 신문 일장을 횡득하와 보오니 그 스의가 공평성대하야 세계스정을 퍽력히 기재함 과 애국스상을 흥기케 권고하고 국민의 지식 발달 권도하는 정성을 한번 보릭 이 위 보던 고담척의 허탄홀을 가히 썩닷깃난 자라 이것을 즈조 듯고 오릭 보앗스면 안즌방이와 장님의 병신 칩망을 심분지일이나 면홀가 룡량하와“

인식이 일련의 사회적 소통 체계를 통해 독립체계로 정식화(formal)된 결과물이다. 곧 『제국신문』을 통해 매개, 소통된 열녀/非열녀의 코드가 스스로를 확정할 가능성을 확장하며 문학 장르라는 안정된 상태로 본격화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치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은 인물들에게 전형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인물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른 판단에 종속되기 마련이라는 점, 근대계몽기 신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당대적 현실성을 구현했다는 점,³⁷⁾ 서적과 같은 인쇄물은 매체의 코드가 지닌 의미를 강화하고 그것을 고착시킨다³⁸⁾는 점을 상기할 때, 신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와 그 안에 형상화된 여성 주인공을 한 시대의 코드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점에서 최초의 신소설 『혈의 루』의 두 여성 주인공인 옥련과 춘애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옥련과 춘애는 매체의 코드가 그에 적합한 인간학을 만들어내는 것³⁹⁾처럼 『제국신문』이라는 매체가 사회적 소통 체계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코드에 조응하는 인물로, 전통적 열녀/非열녀의 의미론을 가능케 했던 컨텍스트에서 벗어나 근대계몽기의 사회적 담론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안정화된 인간형으로 수렴된다. 곧 옥련과 춘애는 근대계몽기 계몽 담론 안에 착종되어 있는 여성인식을 표상⁴⁰⁾한다는 평가처럼 『제국신문』의 여성관련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코드화 곧 열녀/非열녀의 코드를 수렴하되 동시에 조선조 열녀의 의미론을 비(非)개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다.

37) 한기형,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45쪽.

38)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86쪽.

39)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74쪽.

40) 양윤선, <계몽된 딸과 미몽의 어머니-이인직의 『혈의 루』와 20세기 초 한국 가정소설>,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발제문.

여기에 『제국신문』의 여성 이야기가 가정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여성 문체를 다룬 것처럼 신소설 역시 가정을 주요한 컨텍스트로 선택함으로써 『제국신문』의 여성 이야기와 교접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혈의 루』의 첫 장면에 주목한 후, 『혈의 루』를 “신소설 장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가정소설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혈의 루』가 드러내는 “가정소설의 정치성”⁴¹⁾을 읽어낸 논의는 경청할 만하다. 『제국신문』의 열녀/非열녀의 코드화에서 발견되는, 여성 자체의 악함 때문이 아닌 가정을 파괴한다는 맥락에서 악덕의 화신으로 설정된 첩, 무녀, 기녀들은 최초의 신소설 『혈의 루』에서 옥련과 춘애가 환기하는 열녀의 새로운 의미론 즉 가정의 보존이 민족 혹은 국가의 보존이라는 개연성을 예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국신문』의 열녀/非열녀의 코드화가 신소설 『혈의 루』에서 가정-민족(혹은 국가)의 컨텍스트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 가정을 새롭게 발견하고 개연화하려는 근대계몽기 문학장의 움직임이 동반되었다. 1907년 1월 8일부터 『제국신문』광고란에 실리기 시작한 『가정잡지』 발행 알림 광고⁴²⁾가 그것으로, 1907년 5월 5일자 잡보는 각 학교 운동회에 상품으로 법어학교 교관 김상천씨가 『가정잡지』100권을 기부하여 그것을 “오쳐 녀 학교에 각 20권씩 출급한다”고 전하는 바, 이는 『가정잡지』 발행 이전에 이미 그 존재가 사회 상 안정적으로 수용되는 정황을 전한다. 이어 1908년 1월 5일부터 『제국신문』은 논설란에 <가정학>을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문답 형식으로 가정에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글의 내용을 현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성인식이 가정의 문제와 매개되는 정황⁴³⁾을 이해

41) 양윤선, <계몽된 딸과 미몽의 어머니-이인직의 『혈의 루』와 20세기 초 한국 가정소설>,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발제문, 4쪽.

42) “즈녀간 교육에 필요호인 언론과 일용사위에 적당호인 의미를 순국문으로 편잡호야 가정잡지라 명칭호고 미월 일차식 발간호되 양력 룩월 이십오일부터 발행호오니 무론 경향호고 가가구잡호심을 회당호오 경성상동 청년학원 안 가정잡지사”

43) 근대 일본의 경우에도 청일전쟁 전후 미디어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가정소설이라는 장르가 등장했다(가네코아키오(권정희 옮김), <‘가정소설’을 둘러싼 미

하기 위한 단서는 제공한다. 즉 한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이념과 그것을 소통케 하는 매체가 당 시대가 개연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체계에 조응하는 문학 장르의 출현을 추동케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문학 장르가 다수의 독자를 획득하면서 독립된 사회적 체계로 안정화되는 과정을 신소설의 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인직이 구축한 신소설 『혈의 루』의 서사에서 『제국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공유하는 지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예컨대 옥련 모 춘애가 옥련을 잃어버리는 내용은 『제국신문』 광고란에 빈번히 실리는 여아실종광고를 환기시키고, 일본인 군의관에게 구원을 받는 옥련의 처지는 1900년 4월 2일 잡보란에 실린 일본에서 의학 공부하는 학생의 학비를 대주었다는 일본 의사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며, 옥련이 위기에 처하거나 타지에 유학할 때에 민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은 1907년 3월 9일자 잡보란에 실린 <위학구결>⁴⁴⁾이나 1907년 4월 25일자와 26일자 기저인 <북미통신>⁴⁵⁾ 기사가 전하는 사태

디어 복합-1900년대를 중심으로>, <<지식의 근대기획, 미디어의 동아시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양학술회의, 2007, 115~118쪽).

- 44) “리숙원, 윤규원, 리신원 삼씨는 모다 부인인데 일본단지 유학싱의 경비 구조호기 위하여 그전에 보쵸도 잇섯거니와 한번 보쵸로는 장구이 지탱키 어렵다 호야 의쵸금을 수합호야 존분취식호야 련속 보쵸호기로 의연금을 것우다가 여의치 못함으로 평싱에 집신과 장옷을 몰으던 사뵀들이 일전에 집신에 장옷 쓰고 집집이 단이며 학싱의 의쵸금 말은 아니 내고 달은 방법으로 시주를 청호 즉 돈량식 우수히 닉는지라 그 부인 삼인이 돌아와서 피를 토호며 세인의 우미움을 기탄이 닉이고 그 일을 덩지 호야다더라”
- 45) “당초 우리 한인 중 미국에 나온 자는 모다 호나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호였고 ……평안도 순천 ○○학교 생도 리희건씨가 이 나라[미국]서울서 작고호 썩에도 ○○ 리승만씨 혼즈 그 친구를 구원코즈 호야 여러 서양 친구들과 각 교회에 답이며 입살이 타도록 말호야 여러사뵀의 구조를 만이 밧았으나 필경에는 그 친구들도 형세가 다호야 즈기들이 일본공스에게 말호야 병인을 본국으로 보닉고져 흠익……이썩에 그 친구들 마암은 과연 병인을 사랑호이나 그러호나 그 염혜 잇는 한인의 마음이야 얼마쵸분호며 얼마쵸분그리울이오. 그런고로 그 죽게 된 병인도 이것을 분히 닉이여 그 친구들의 덕호야 좋용히 사례호고 말호기를 나는 츠라 리 외국에 고힌이 될지언정 우리 일반 국민이 한 가지로 도히 닉이지 않는 나라 사뵀의 보호는 밧지 안켓노라 호고……”

와 유사하다. 또한 1907년 2월 16일자 잡보에 등장한 민족애로 무장된 “십이세 여아 리상길과 팔세 여아 김년희”는 옥련이를 떠올리게 하며, 옥련은 1901년 5월 4일자 창간 100일을 맞아 실린 <특별고백>에서 『제국신문』이 말한 바, “사람은 학문이 있는 연후에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진술에 부합하는 여성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제국신문』 기사와 『혈의 루』 서사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양자가 소통한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작가 이인직의 창작과정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인직은 일본 동경정치학교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일본의 신문연재소설-신파극의 문화적 실천 도식을 조선의 신소설-신연극으로 이행한 인물이다. 이인직은 신문이라는 매체가 신문연재소설이라는 선형성에서 신파극이라는 입체적 문화물로 확장되는 것을 일본에서 직접 체험한 인물로 그는 자신의 체험을 1908년 신연극 <은세계> 공연으로 현실화했다.⁴⁶⁾ 특히 이인직은 실사(實事)를 소설의 내용으로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은세계> 공연을 “신연극”이라고 강조하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⁴⁷⁾

청일전쟁의 평양성 전투를 배경으로 한 『혈의 루』의 혁신적인 첫 장면을 기억한다면 실사(實事)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는 이인직의 원칙은 『혈의 루』의 창작에서도 일관되게 고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인직 최초의 습작인 <과부의 꿈>을 교열한 것으로 알려진 치즈카 레수이와 이인직의 관계는 이러한 추론에 더욱 힘을 더한다. 치즈카 레수이는 유빈 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의 기자로서 청일전쟁 당시 평양 전투를 직접 취재하고 종군 체험 기록, 특히 평양성 전투 취재 기록을 『진중일기』(1894)

46) 김기란, 「신연극 <은세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47) 다음의 기사는 실사(實事)가 신소설의 소재로 활용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원각사에서 장췌 안주군에 사는 리쇼스의 전일 악형을 당하던 일노 새 연회를 뽐인다고 대한신문에 게재한 바 어머니와 다시 드른 즉 그 리쇼스를 평화야 전후 스실을 일일이 탐문하는 줄이라더라”(「스실탐문」,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7일)

와 『격전 중의 평양(상/하)』(1895)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남겼다. 더욱이 치즈카 레수이와 이인직은 같은 신문사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는 바, 치즈카 레수이의 평양전투 체험과 이인직의 『혈의 루』의 창작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⁴⁸⁾

신문기사 속 ‘현실’과 소설 속 ‘허구’를 매개하는 관계는 『제국신문』에 등장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혈의 루』라는 신소설로 안정화되는 과정, 곧 취재된 ‘현실’들이 신문매체라는 사회적 소통 체계를 거치면서 문학 장르라는 개연성을 지닌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존재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곧 『혈의 루』의 두 여성 주인공 옥련과 춘애는 『제국신문』에서 기사화된 열녀/非열녀의 코드를 통해 형상화되고, 『혈의 루』의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은 『제국신문』에 실린 기사 속 사건과 유사하게 구성되며, 이런 조건들의 이념적 지향점은 『제국신문』 논설에서 지향한 당대 이상적 여성성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가정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교환될 수 없는 성적(性的) 비(非)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영역으로 여성을 이러한 가정의 컨텍스트에 위치시키려는 관념 자체가 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가정이라는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혈의 루』의 여성 주인공이 주목되는 이유는 전통적 가정의 성적(性的) 비(非)대칭성을 여성과 남성 역할의 교환이 가능한 대칭성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혈의 루』의 옥련 모 춘애가 속한 가정은 전통적 여성들의 그것으로 성적(性的) 비(非)대칭성이 고수되는 영역이다. 이에 반해 이전에는 남성의 영역에 속하던 신학문, 유학, 민족 영역의 주체로 설정된 옥련은 자신의 가정을 성적 대칭성을 지닌 것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이처럼 『혈의 루』는 가정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두 여성 주인공을 서사화했기에 두 여성을 짝패삼아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⁹⁾

48) 강현조, 『『혈의 루』의 원전 비평적 연구』, 『우리말글』 41호, 우리말글학회, 2007, 227쪽.

49) 권보드래의 논의처럼 신소설의 서사패턴을 소위 “남성-이주의 서사와 여성-망명

옥련을 당대의 이상적 남성성을 전유한 여성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성을 전유한 여성들의 존재가 아니라 이를 통해 성적(性的) 비(非)대칭성이 대칭성으로 교환되며 여성과 가정의 컨텍스트가 새롭게 규정된다는 점이다. 춘애는 성적(性的) 비(非)대칭성과 대칭성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혈의 루』가 필연적으로 요구한 인물이며, 동시에 “비문명화된 과거의 잔재와 민족의 존중할 만한 전통이라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 사이에서 동요”⁵⁰⁾하는 열녀/非열녀 코드화의 역설⁵¹⁾을 내장한 인물이다. 춘애라는 인물이 내장한 역설은 곧 코드화의 역설이기도 하다. 예컨대 열녀/非열녀의 코드가 함축하고 있는 구별 자체는 제거될 수 없지만, 열녀라는 코드 자체를 非열녀라고 지칭할 가능성 역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코드는 열녀가 열녀인지 非열녀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코드화의 역설을 지닌다. 『혈의 루』의 춘애가 보여주는 당대 여성인식의 코드화가 지닌 역설은 신여성이 등장한 후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 속에서도 지속⁵²⁾된다는 점에서 『혈의 루』의 두 여성 주인공은 분명

의 서사”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는 동일한 공간의 이탈을 남성에게는 이주로, 여성에게는 망명으로 차이화하는 매개인 가정이라는 컨텍스트다. 이런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을 각각 개별적 성, 그들의 행위를 개별적 행위의 패턴(pattern)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맥락(context)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겠다(패턴(pattern)과 컨텍스트(context)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영민의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 지성사, 1996 참조할 것).

50) 양윤선, <계몽된 딸과 미몽의 어머니-이인직의 『혈의 루』와 20세기 초 한국 가정 소설>,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발제문, 12쪽.

51)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72쪽.

52) “전통은 문명개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으로 설정되었다. 전통은 주로 조선의 가정과 관련되어 이해되었기에 가정은 조선의 도덕적, 정신적 우월성을 보증하는 영역이었다. 전통의 담지자이며 가정의 중심인물로 여겨졌던 여성들은 민족을 위한 통제의 대상이자 조선의 미덕을 구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다.”(전은정,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9권, 한국여성연구소, 2000, 30쪽)는 평가 역시 이러한 코드화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문제적이며 동시에 개연적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혈의 루』의 두 여성 주인공을 구분하는 신/구의 이분법 역시 유효할 수 없다. 신여성 옥련이나 구여성 춘애 모두 가정과 관련하여 담지하고 있는 내용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혈의 루』가 “관민족적 문명개화 교육을 통해 옥련은 개화한 한국 남성의 약혼녀가 되고, 이로서 신분제 중심적인 전근대 가족 대신 다른 가정들에 대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며 민족국가에 대해서 동등한 접근권한을 갖는 근대 가정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평가⁵³⁾는 유보되어야 한다. <열녀전>이나 <삼강행실도>처럼 전통적 교훈서에 나오는 여성을 상기시키는 춘애 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을 한 근대적 계몽지식인의 외파로 치장된 옥련 역시 가정을 구성하는 구심점이 되는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전근대적⁵⁴⁾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 근대적 연애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수많은 구별들, 가령 남녀의 구별, 노소의 구별, 애인과 다른 인격들의 구별 등은 모두 쾌락과 사랑이라는 중심적 차이를 통해 의미론적으로 변형⁵⁵⁾되고 결혼의 근대적 의미는 자유연애(낭만적)의 본질인 자유를 기반으로 한 행동의 선택가능성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옥련의 경우 연애든 결혼이든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계몽된 민족, 근대화된 국가라는 단일한 항목이며 그것의 지향점은 계몽된 민족과 근대화된 국가에 복속되도록 구성된 가정이다. 이후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

53) 양윤선, <계몽된 딸과 미몽의 어머니-이인직의 『혈의 루』와 20세기 초 한국 가정 소설>,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발제문, 3쪽.

54) 1899년 5월 18일자 논설. “세계 각국에 미국 녀즈같이 희한한 것은 업스니 그 혼인 하기 전에는 행동거지를 주유와 임의로 햏야 흑소년 남즈와 말도 꺄치 들니며 마차도 혼 가지 트며……미국 스정에 통달치 못흔 외국사름의 눈치에 반드시 이상 혼 싱각을 들지라……그러햏나 그 실상인즉 죠곰도 의상햏이 없스며 그 정절과 죠심의 꺄세고 아름다움은 가히 칭찬햏만 혼지라……” 미국 여성들의 자유 연애를 조선의 정절과 정숙함으로 이해하는 글로 근대계몽기 혹은 그 이후 신여성 담론이 노정한 자유연애의 모순된 지점을 잘 보여주는 예다.

55) 니콜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131쪽.

위 자유연애(낭만적 사랑)가 새로운 성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가정(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자유연애의 '자유'가 오히려 결혼을 통해 또 하나의 가정(가족)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로 이해되고, 그렇게 생산된 가정(가족)이 기존 가족의 영향 밑에 놓이는⁵⁶⁾ 순환을 반복하게 된 것처럼 옥련이 『혈의 루』의 말미에서 구성한 근대적 가정이란 허구이자 관념일 뿐이다.

5. 매체의 코드화와 문학 장르

본고에서는 근대계몽기 『제국신문』이 매체로 기능하며 열녀/非열녀의 코드화를 작동시키는 과정을 고찰하고, 열녀/非열녀의 코드가 신소설 『혈의 루』의 두 여성 주인공 옥련과 춘애와 소통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코드화를 매개로 근대계몽기 여성인식의 의미론이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학으로 환원되는 매체와 문화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혼과 가정의 구성이 지닌 사회적 의미론은 사회체제와 양립 가능한 것이었을 때 개연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이전 사회체제에서 경험되던 개연성이 상실되면 그것은 새로운 개연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층화된 구(舊) 사회체제와 가정체제가 존속하던 근대계몽기, 열녀/非열녀의 코드화로부터 추동된 『혈의 루』의 문제적 여성 주인공 옥련은 근대계몽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열녀의 개연성을 구축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혈의 루』에서 옥련의 서사가 춘애의 서사에 비해 분량 상 터무니없이 적은 것⁵⁷⁾은 옥련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개연성

56)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주체의 성격', 『사회과학논총』 17집, 1998, 224쪽.

57) 만세보에 연재된 『혈의 루』 50회 중에서 20회 정도가 춘애를 중심인물로 해서 전개되는데, 이는 김관일에 할애된 분량보다는 약 4배, 옥련의 약혼자 구완서보다는

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형상화가 아직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옥련이 개인의 열정이 아닌 개인의 이성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약혼을 통해 민족(국가)공동체의 은유인 가정을 구성하려 하고, 미몽의 조선땅과 계몽된 미국땅에 떨어져 있던 옥련과 춘애가 다시 만나 한 가정을 이루며 기거하게 될 거리는 하권을 예고하는 『혈의 루』 상권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매우 불길하다.

최초의 신소설이라는 대의에 주목하거나 의심할 바 없는 근대계몽기의 이념으로서 옥련을 부각시켜 온 『혈의 루』 관련 기존 연구들은, 옥련이라는 인물을 시대가 요구하는 개연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소통의 과정을 분석에 담아내지 못한 채 옥련이라는 존재를 당대의 이념이나 작가 이인직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시켜 논의해왔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 방법은 옥련이라는 문체적 여성 주인공을 특히 여성주의 관점에서 주목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곧 “한국에서 페미니즘 연구는 주로 ‘여성’이라는 주체성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하며 동시에 신성화하는 역설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의 여성사 연구는 민족이라는 주체를 신성화하고 역사를 민족의 생성과 발전의 과정으로 탐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 발전, 전개라는 동일한 도식을 반복하는 바 이는 젠더화된 근대적 주체성의 기획을 반복하는 것이다”⁵⁸⁾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한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혈의 루』의 두 여성 주인공의 출현을 열녀/非열녀의 코드가 추동시킨 사회적 소통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그 소통의 과정을 분석했다. 열녀/非열녀의 코드가 확장된 『혈의 루』 텍스트 내 여성인식의 의미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약 2배 가량 많은 분량이다. 또한 옥련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19회 이전까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인물도 춘애이다(양윤선, <계몽된 딸과 미몽의 어머니-이인직의 『혈의 루』와 20세기 초 한국 가정소설>,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발제문, 1쪽).

58)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63쪽.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제국신문』, 『혈의 루』

2. 단행본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1~184쪽.

김영민,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 지성사, 1996, 1~218쪽.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1~511쪽.1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501쪽.

차태근, 「매체의 문학과 문학적 매체」, 『지식의 근대기획, 미디어의 동아시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양학학술회의, 2007.

최기영, 『<제국신문> 연구』,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1989, 1~74쪽.

베르너파울슈티히, 황대현 옮김,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지식의 풍경, 2007, 1~574쪽.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1~340쪽.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옮김,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8, 1~510쪽.

Peter Ludes, *Einführung in die Medienwissenschaft-Entwicklungen und Theorien*, Berlin : Erich Schmidt Verlag, 1998.

3. 논문

강현조, 「『혈의 루』의 원전 비평적 연구」, 『우리말글』 41호, 우리말글학회, 2007, 217~237쪽.

김기란, 「한국 근대계몽기 신연극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김기란, 「신연극 <은세계>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195~241쪽.
- 김춘식, 「한국 신문학 초창기의 문학장의 형성과 서구적 개념의 미적 근대성 비교」, 『동서비교문학저널』 12호, 2005, 171~195쪽.
- 박애경, 「야만의 표상으로서의 여성 소수자들」, 『여성문학연구』 19호, 여성문학학회, 2008, 103~138쪽.
- 박진영, 「번역·번안소설과 한국 근대소설어의 성립」,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양윤선, <계몽된 딸과 미몽의 어머니-이인직의 『혈의 루』와 20세기 초 한국 가정소설>,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발제문.
-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고전여성문학연구』 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66~98쪽.
- 이송희, <한국 근대사 속의 여성 리더십>, 《역사속의 여성리더십》, 한국여성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1.
- 전은정, 「근대 경험과 여성주체 형성과정」, 『여성과 사회』 9권, 한국여성연구소, 2000.
-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주체의 성격」, 『사회과학논총』 17집, 1998.
- 한기형,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가네코 아키오, 권정희 옮김, <‘가정소설’을 둘러싼 미디어 복합-1900년대를 중심으로>, 《지식의 근대기획, 미디어의 동아시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양학학술회의 자료집, 2007.

Abstract

A Study on Process of probabilistic Understanding of Woman through Process of Coding in a Medium in 1900s

-focused on articles about women in *JaeGuk-ShinMun*-

Kim, Ki-r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about the approaches, so-called 'cultural studies' opened researches internal Korean literature studies in 2000s. The cultural studies, a close associate of media, have had a tendency to involute into the literature texts. With the critical mind that in the tendency to involution into the literature texts the cultural studies have little point in i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 with Medium and Lee In Gik's SINSOSEOL (early modern novel), *Hyul-e-nu(blood tear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meaning in coding virtuous women and non-virtuous women in the context of home,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woman had changed into the new understanding of woman, which was demanded in the context of home in 1900s. Above all, two heroine in *Hyul-e-nu(blood tears)*, Okrun and her mother Chunae have to do with the new meaning of coding of virtuous women and non-virtuous women. Okrun has been said as the modern girl, but she was unstable and paradoxical character who wandered between the modern and pre-modern.

Key words: *JaeGuk-ShinMun*, *Hyul-e-nu(blood tears)*, Media, Process of Coding, virtuous women, non-virtuous women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